

# 무결점 운동(Effect 100) 실천, 고객 감동 실현

## 2015년 세계 10대 화장품 포장재 전문기업 도약



기 중 현  
(주)연우 대표이사

남녀를 막론하고 화장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대사회는 화장품 소재, 평가기술면에서 많은 발전을 요구, 궁극적으로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노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등 화장품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제품 구매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포장 산업 역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약 20조를 상회하는 화장품 부자재 시장 역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감동을 위한 품질경영의 실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경영의 실현, 사회구제를 위한 박애주의의 실현을 경영이념으로 국내 뿐 아닌 해외시장 개척에 선



▲ 화장품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는 (주)연우



▲ 인천광역시 가좌동에 위치한 (주)연우 공장전경

두를 달리고 있는 (주)연우 (대표이사 기중현)는 화장품 전문 제조회사이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연우는 1983년에 설립된 이후, 1990년 화장품용 디스펜서 펌프(Dispenser Pump)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 수입대체품의 국산화 개발 표창을 수상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진공용기의 불모지였던 1990년 “화장품용 디스펜서 펌프(Dispenser Pump)”를 국산화한데 이어 1995년 Air-less Container & Pump,

1996년 로션용 Dispenser Pump & Air-less Pump 를 개발하면서, 국내 최고의 화장품 부자재 제조 업체로 도약하게 된 (주)연우.

(주)연우는 1994년 법인을 전환했으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1999년 당시 화장품 업계 유일의 ISO 9002 품질보증시스템인증을 획득하며, 품질제일주의를 실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연우는 2001년 300만불 수출의 탑, 2002 중소기업경영혁신컨설팅 우수기업 선정, 2003년 500만불 수출 탑 수상, 기술혁신형중

소기업(Inno Biz) 인증을 획득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기업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지난 해 11월 제42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는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 실질적으로 지난 2005년 한 해동안 2천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면서 비약적 발전 기업 (주)연우의 면모를 공고히 했다.

현재 (주)연우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화장품 마켓 셰어 45% 이상을 차지하면서 화장품용 디스펜서 펌프(Dispenser Pump)와 화장품용기, 그리고 각종 화장품 부자재들을 태평양, LG생활건

## YON WOO

강을 비롯해 2백여개의 국내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니레버, P&G, 에스티로더 등 해외 세계 우수 화장품 회사와도 지속적으로 거래하며 해외시장에서 (주)연우의 이름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연우 혁신전략팀 이영균 팀장은 "(주)연우는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을 매년 관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2005년을 기준으로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25대사와 거래, 국내외 우수 화장품 회사로부터 고품질과 단납기의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속에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회사"라는 이념을 기반

으로 (주)연우는 2015년도 세계 10대 화장품 포장재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혁신활동에 대한 컨설팅 비용만 3000~5000만원 가량 투자하고 있는 (주)연우는 매년 혁신활동을 통해 조직을 개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시작된 (주)연우의 혁신활동은 현재 E-경영체제로 발전, 매출 100억 미만이었던 혁신활동 시작 당에서 현재는 매년 30%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쾌거를 달성하고 있다.

현재 (주)연우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활동은 무반품 운동(Effect 100). 무반품 운동(Effect 100)은 생산 시스템에서 효율의 극한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품질, 납기, 가격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로스(loss)를 사전에 제거하고 방지하는 (주)연우의



▲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단납기를 준수하고 있는 연우 생산라인



▲ (주)연우 생산현장

혁신활동으로 지난해 8월 최초로 무반품 30일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주)연우는 “국내에는 경쟁업체가 없다”는 자신감으로 이탈리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중국 상해 국제화장품미용박람회 등의 해외 우수박람회에 매년 10회 이상 출품, 브랜드 신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품질 제일주의”를 실천하며 애사심을 갖고 있는 (주)연우 전직원들의 사명감에는 기중현 대표이사의 임직원을

배려하는 복지제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다고 이영균 팀장은 밝힌다.

기중현 사장은 직원 영어교육, 대학원 진학시 지원 등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팀별 자율경영 체제를 실천하고 구두보고(口頭報告) 체제를 마련,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열린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주)연우는 2006년도 1/4분기 내에 ERP시스템을 정착시키고, 25%가량 성장

해, 500억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포부아래, 궁극적으로 토탈 패키지 솔루션(Total Package Solution)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로 소비자 만족을 꾀하며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최단 납기일을 실천하고 있는 (주)연우. 이미지 산업이자 문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화장품업계와 화장품 부자재 시장의 성장, 그 중심에 (주)연우가 있다. ☐

박초혜 기자